

# 5·18재단·민주묘지, 유공자 관리 엉망

### 여성 희생자에 남성 사진 붙이고 사망일자 오류 등 홈페이지 부실 100여명 정보 불일치...윤상원 열사 정보도 제각각 등 개선 시급

5·18기념재단과 국립5·18민주묘지가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하는 5·18민주항쟁 희생자에 대한 정보가 제각각이고, 사진이 바뀌거나 사망일자를 잘못 기재한 사례 등도 수도무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5월 단체 관계자들은 내년 5·18 40주년에 앞서 지역에서부터 5·18에 대한 역사 정립을 마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26일 5·18기념재단 홈페이지 '사이버잡배' 항목과 국립5·18민주묘지 '안장자 정보' 항목, 5·18희생자 검사보고서를 비교 분석한 결과, 희생자 165명 중 사진이 뒤 바뀌거나 사망일자가 틀리는 등 100여명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았다.

1980년 5월22일 20사단의 국군통합병원 확보 작전때 빛나간 총탄에 사망한 고(故) 이매실(여·사망당시 68세)씨가 대표적이다.

5·18묘지 홈페이지에는 이매실씨의 사진만 고(故) 이명진씨의 사진이 게재돼 있다. 이씨는 올해 1월 5·18묘지관리사무소가 선정한 '이달의 5·18유공자'에 선정될 만큼 잘 알려진 인물이라는 점에서, 묘지관리사무소측의 홈페이지 부실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와 함께 5·18재단 홈페이지에는 고(故) 고규석씨의 생년월일이 1965년 2월 25일로 나와 있었다. 재단 홈페이지 내용

대로라면 고씨는 사망 당시 15세에 불과해야 하지만, 고씨는 5·18 때 이미 5남매를 둔 가장이었다. 고씨의 실제 생년월일은 1943년 4월12일이다.

시민군 대변인으로서 5·18을 상징하는 인물 윤상원 열사의 정보도 제각각이었다.

윤 열사 직업의 경우 5·18묘지 홈페이지에는 전남대 학생, 5·18재단 홈페이지에는 아학교사라고 소개돼 있었다. 재단 홈페이지는 윤 열사의 본명 윤개원을 소개하고 있지만, 묘지 홈페이지에는 이같은 내용도 찾아볼 수 없다.

또 5·18재단 홈페이지는 끝까지 도청을 사수하다 5월 27일 사망한 김중연 열사의 사망일자를 5월 22일로 적시해 놓고 있으며, 묘지 홈페이지에는 호남신학대 4학년이었던 문용동씨를 1학년으로 표기하는 등 곳곳이 오류 투성이었다.

생년월일이나 학년이 일치하지 않은 희생자는 48명, 사망일자가 각기 다른 희생자는 32명에 이르는 등 희생자 100여명의 정보가 불확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5·18묘지관리소 관계자는 "홈페이지 제작할 때 희생자 정보 입력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며 "사진이 바뀌신 분들은 조속히 바로 잡고, 그 외 부정확한 정보는 정확한 현황을 파악한 뒤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5·18재단 관계자는 "10년 전 홈페이지를 만들때 유족회 명단을 통해 안장자 기록을 작성했는데 오타 등이 있었다"면서 "희생자 정보 업데이트 필요성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선불리 수정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5·18 광주의거' 초본 5·18기념재단에 기증

박석무(전 5·18기념재단 이사장) 다산연구소 이사장이 1980년 6월 작성한 '5·18 광주의거-시민항쟁의 배경과 전개 과정' 기록물 초본을 5·18기념재단에 기증했다. 200자 원고지 140장 분량은 이 기록물은 5·18 직후 작성된 최초의 체계적 기록물(광주일보 2018년 5월14일자 6면)로 꼽히고 있다.

5·18기념재단은 "지난 19일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으로부터 5·18민주화운동 당시 직접 경험하고 같은 해 6월 작성한 '5·18 광주의거-시민항쟁의 배경과 전개 과정' 원고의 초본을 기증받았다"고 26일 밝혔다.

'5·18광주의거'는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10일 간의 광주항쟁 배경부터 전개 과정, 광주항쟁의 의의까지 5·18민주화운동의 흐름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기록한 것이다.

당시 광주 대동고등학교 영어교사였던 박 이사장은 항쟁에 참여했다가 5월 27일부터 검거령이 내려져 수배돼 6월 5일 상경했다. 이후 6월 13일까지 서울에서 은신하며 운동권 후배들과 긴밀한 상의 끝에 죽기 전 유언으로 광주의 진실을 밝혀주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이 문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박 이사장은 "최근 이어지는 5·18 역사 왜곡을 보고 5·18 진상규명에 도움이되길 기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5·18기념재단은 이 기록물을 5·18 진상규명 및 왜곡 처벌 근거와 연구·교육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독도사랑 외치는 대학생들 전남대·전북대·경북대·충남대 등 4개 거점 국립대학교 학생 160명이 25~28일까지 3박4일간 '2019 나라사랑 독도사랑 국토탐방'을 진행한다. 4개 대학 학생들이 독도에서 국토탐방단 발대식을 한 후, 태극기를 흔들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또 여성 집까지 따라가...잇단 범죄 '불안'

광주 도심에서 모르는 남성이 여성의 집까지 따라가는 주거침입 범죄가 잇따르면서 여성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광주남부경찰은 26일 향수 녀씨가 좋다며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성의 집 현관 앞을 서성인 A(28)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께 광주시 남구 주월동의 한 아파트 22층에서 B(여·30)씨의 집 현관 도어락을 만지거나 녀세를 맡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A씨가 자리를 떠나지 않고 현관 밖을 서성거리자 집에 있던 남편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남편이 밖을 둘러보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 A씨는 도주했다. A씨는 아파트 옥상(26층)에 숨어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옥상에 올라갔다 계단으로 내려오는 길에 마주친 B씨에게서 나는 향수 녀세가 좋아 녀세를 맡아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주거 안정을 해친 것으로 보고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광주서부경찰은 지난 19일 새벽 0시 5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집안에 들어가려한 C(40)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C씨의 경우 성범죄 목적이 있다고 보고 강간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가 좋아 녀세를 맡아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주거 안정을 해친 것으로 보고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광주서부경찰은 지난 19일 새벽 0시 5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집안에 들어가려한 C(40)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C씨의 경우 성범죄 목적이 있다고 보고 강간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남구 '300억대 리모델링 비용 상환 폭탄' 감사원에 재심의 요청키로

### "위탁개발비 전체 상환 억울"

광주시 남구가 '남구종합청사 리모델링 개발사업 위탁개발비 상환 책임이 남구에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광주일보 2019년 6월25일자 1면)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기로 했다.

남구는 "이번 감사원 감사보고서에는 수탁기관으로서 임대 활성화와 공실을 최소화할 위해 노력해야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책임부분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서 "다시한번 감사원에 심의를 해 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위탁개발사업계획서에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역할, 위탁개발비 상환 방법 등이 규정돼 있지만 감사원 감사보고서에는 캠코의 역할과 의무가 누락됐다. 남구는 캠코에 임대료 하락과 공실률 및 재산관리비용 증가 등 시장위험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구는 위탁개발 사업구조에 대해서도 정밀 진단을 다시 요청하기로 했다.

사업계획서에는 남구종합청사 위탁개발사업은 캠코가 301억을 조달해 리모델링을 하고, 임대공간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입으로 비용을 최대 27년(기본 22년+연장 5년) 안에 회수해 가는 구조인데, 위탁개발비 전체를 남구가 분할 상환하라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남구 관계자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등 법적대응도 검토해 계획이며, 캠코에게도 위탁개발사업계획서상 관리자로서의 임대사업 정상화 의무를 다하도록 촉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6월 투자금 환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캠코는 남구에 리모델링 비용 등 투자손실액의 상환을 검토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남구는 캠코측이 투자 손실액을 감당해야 한다며 감사원에 위탁개발비 상환 책임 여부를 묻는 공의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24일 위탁 기간내 캠코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남구가 위탁개발비를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메이크업 관심 많은 남고생 10만원 상당 화장품 훔쳐

광주북부경찰은 26일 화장품 가게를 돌며 10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훔친 조모(18)군을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군은 지난 3월 17일 오전 10시 10분께 광주시 북구 문흥동의 한 화장품 매장에서 2만원 상당의 파운데이션을 훔치는 등 지난 4월 10일까지 3차례에 걸쳐 화장품 매장에서 10만원 상당의 여성용 화장품 5개를 훔친 혐의다.

고등학교생인 조군은 경찰에서 평소 메이크업에 관심이 있어 본인이 직접 화장을 해보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점심시간 빈 교회 들어가 현금합서 현금 훔친 50대

광주북부경찰은 26일 교회에서 돈을 훔친 김모(50)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6일 낮 12시 30분께 광주시 북구 오치동의 한 교회에서 목사와 신도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합서에서 2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친구와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던 김씨는 교회 앞을 지나던 신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러 식당으로 이동해 교회 예배당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아내의 맛' 제작진, 송가인 아버지 '전라디언' 표현 여론 못매

○TV조선 '아내의 맛' 제작진이 방송에서 진도 출신 인기 트로트 가수 송가인씨의 아버지를 호남 비하 단어인 '전라디언'이라고 표현해 여론의 못매.

○지난 25일 밤 10시 방송된 '아내의 맛'에서 가수 송가인씨의 아버지가 콘서트 앞둔 딸의 보양식을 준비하기 위해 민어를 손질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제작

진은 해당 장면에서 송씨의 아버지를 극우 성향 커뮤니티 '일간베스트'가 호남인을 비하할 때 쓰는 '전라디언'이라고 자막 표기한 것.

○방송 이후 시청자 항의가 폭주하자 '아내의 맛' 제작진은 "이 용어가 일반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인지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더 신중하고 주의 깊게 방송을 살피겠다"고 공식 사과.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태양광발전소 연계 ESS에너지저장장치

-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태양광 발전소에 ESS 설치시 REC 가중치5.0배
- 설치방법 : 본인부담10%·용자90%
- 1년거치 14년상환 (1개월이내 설치완료)

★태양광발전사업소, 매도·매수 하실 분 상담환영 **총괄본부장 010-9896-9754**

★태양광분양 및 태양광 현재설치중, 설치완료, 개발행위완료, 선로확보, 물건 다량확보

**제품**

LG ESS 삼성SDI SAMSUNG

**ESS·설계·시공**

ESS통합시스템 15년 효율보증서 발행 (무정전 전력 공급장치)

경제혁신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태양광 발전소에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대폭 확대

- 태양광 +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제(가) 기준치 5.0 부여 -

정부와 지자체,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신산업인cent 4개 단계(신재생·전력·전차·제약)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협력 체결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협력 체결을 통해 전면적인 규제 정비 개시

지자체, 에너지신산업 특별조례, 재정 지원

시남에 예산총액 등 대규모 프로젝트(4조원) 추진 가능함에 긍정적

**전국 지사·대리점·영업자 모집**

대표전화 1577-8963

전남지사 010-6838-3366

주소 | 순천시 중랑로 317 2층

전화 | ☎061-752-7000 Fax | 061-751-6000

총괄본부장 | 010-9896-9754